



위용 드러낸 무영대교 8일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영암군 삼호읍 서호리를 잇는 무영대교(길이 860m·폭 26.2m) 건설 현장. 현재 다리 상판이 올라가는 등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목포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무안 남악신도시를 거쳐 바로 F1 경주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돼 F1 대회기간 중 수도권과 광주 방면 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추진돼왔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대회 이전 개통이 가능하다"고 밝혀 대회 교통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 전남도 '사람사는 섬 만들기' 종합대책 무슨 내용 담았나

어장개발 규제 풀고 어선 현대화 지원

도서개발비 늘려 離島 고리 끊어야 물류비 지원 등 5개항 정부에 건의

전남도가 '사람사는 섬' 종합대책을 마련해 8일 정부에 건의한 것은 전남이 비교우위 자원인 바다와 섬,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해양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섬 지역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원이 미흡해 해양자원이 방치되면서 주민들이 섬을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사람사는 섬'을 만들기 위해 양식장 개발과 물류비 지원, 가거도에 해군기지 구축 등 5개항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무총리실 등 6개 정부 부처에 건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토 최서남단인 신안 가거도에 해군기지를 구축해 달라는 건이다. 가거도는 해상방

위상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 방어 인력은 43명에 불과해 서남해안으로 침투하는 간첩과 밀입국을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남도는 따라서 가거도를 간첩 침투 및 밀입국 사전 차단 위한 전진 기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군기지 구축이 필요하고 해군기지 건설 이전까지는 해군 함정 주둔이나 이와 상응하는 해군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규모 양식장 개발 및 수출 산업화 촉진도 절실하다. 전남은 개발 가능한 어장면적이 24만8000ha에 달하지만 실제 운영은 61.7%인 15만3000ha에 불과하다. 또한 천혜의 어장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어장 이용개발규제로 김·미역·어류·굴 등 수출유망품목의 어장개발이 제한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내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개정해 김·미역·굴 등 5개 품목에 대한 신규 어장개발을 허용해 줄 것과 대규모 양식장 조성을 위해 국비 900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섬 지역 여객선 운임 및 물류비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관광객 유치를 꾀하고 있다. 여객선 운임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은 현재 50%에서 70%로 올려주고 방문객에 대해서는 1만원까지는 20%, 1만원 초과시에는 전액 지원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류비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생필품 운송비와 농수축산물 해상 운송비도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섬 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전남도는 정주여건 개선과 이도(離島) 현상건을 갖추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어장 이용개발규제로 김·미역·어류·굴 등 2배 수준인 1000억원으로 늘려 줄 것

과 해양관광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전용펀드 조성도 원하고 있다. 어선 현대화사업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전남지역은 5이하 소형어선이 전체(3만2758척)의 92.6%에 달하는데 노후화 돼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선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민들은 감축으로 인해 어업허가가 소멸될 것을 우려해 감축사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연안어선 5척을 감축할 경우(폐업보상) 현대화 어선 1척 건조를 허가할 것과 현대화 어선 소유권을 시군이 갖고 자격을 갖춘 어업인을 선발해 일정기간 어선을 빌려주는 제도를 도입해 어선 현대화 사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역사적으로 불태 누가 해양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세계의 패권이 결정됐다"며 "해양자원 개발은 국가의 시대적 과제로 정 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商議 '과학벨트' 100만인 서명운동

독일·일본 연구기관과 제휴 등 6대 전략 채택...市와 투트랙 유치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지역 경제계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8일 광주상의 3층 의원회의실에서 경영자문위원회 위원과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 관계자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상의 경영자문위원회 제4차 간담회'를 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웅진 조순대 자연과학대학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 당위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치의 당위성으로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도 ▲우수한 정주환경 ▲국내외의 접근 용이성 ▲부지 확보의 용이성 ▲지반 및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등을 들었다. 경영자문위원회와 과학벨트 관계자들은 이를 토대로 유치 전략을 논의,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원·일본 이화학연구소와 MOU 체결 ▲과학벨트추진위의 수시 교류 ▲시·도민 100만인 서명운동 ▲세부시행계획 조속 수립 ▲거점지구·기능지구 지정 ▲국



광주상공회의소 경영자문위원회 제4차 간담회 8일 오전 광주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광주상의 제공>

제도시 환경조성 등 6대 유치 전략을 채택했다. 광주상의는 이같은 유치 전략을 광주시에 요청해 공동 추진함으로써 호남권이 과학벨트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상의는 오는 21일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광주상의는 또 올해 분과별로 '광기술기반 융합부품 소재산업 육성방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전

남권 유치방안', '광주 R&D(연구개발)특구 육성방안',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발전방안'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 연구에는 이광민 광기술기반 융합부품소재산업 센터장, 김동근 호남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광기반 융합부품 지원실 PD, 정성창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장, 이정록 전남대 교수, 정형식 조순대 교수, 장하경 광주대 교수, 강창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생생 자치

전남도 간부회의의 들여다보니

박지사 "해외투자 유치 활동 효과부터 따져봐야" 일방 보고식 실·국장간담회 토론회로 운영 지시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해외 투자 유치 활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지사는 7일 열린 현안보고를 겸한 실·국장 간담회 자리에서 "2011 간는 국제부동산박람회" 참가 계획을 보고받은 뒤 "효과가 있느냐"고 물었다. "2007년부터 참가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도 했다. 전남도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국제부동산박람회에 참가, 홍보 부스를 임대하고 영암·해남 관광래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와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여수세계박람회, 섬 개발 프로젝트 등 핵심 현안을 소개하는 한편, 잠재적 투자가 발굴 및 상담을 병행한다. 투자정책국장과 전남도의회 의원 등 5명이 참가하는데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쓰인다. 박 지사가 "한번 참석했다고 계속 참여할 것인가"면서 "참가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계속 참여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5년간 수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도, 정밀화학기업인 미국 알버말(Alber-

marle)사의 투자 유치를 제외하면 정확한 성과측정 지표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질책이라는 게 전남도 안팎의 분석이다. 박 지사는 또 실·국장 간담회를 토론회로 바꾸고 회의방식이 단순한 현안·실적 보고를 넘어 간부 공무원들이 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난상토론회 방식으로 변경토록 했다. 그동안 간담회는 각 실·국장들의 업무 보고가 회의시간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고 현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일도 전무했다. 박 지사는 "일방적 보고 방식의 간담회는 의미 없다"면서 "각 국장들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반드시 토론을 거친 후 다음 현안 보고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실·국장 정도 됐으면 담당 분야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분야만 열심히 하고 다른 도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 되느냐", "소극적인 간부를 가려내겠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회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토론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Jeonnam Development Corporation. It features a family sitting on a globe with a green leaf logo. Text includes: '성공의 동반자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전남 미래가치 디자이너', '전남개발공사'. It lists details for a land development project in Namak Island, including application requirements,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080-285-0600).